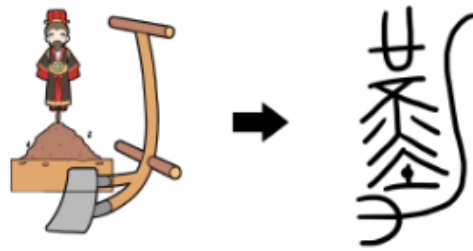


## 회의문자①



勤

부지런할  
근(:)

勤자는 '부지런하다'나 '힘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勤자는 耜(진흙 근)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耜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진흙'이라는 뜻이 있다. 물이 젖은 진흙은 매우 무겁다. 이렇게 축축한 땅을 다지려면 몇 배의 힘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축축한 진흙을 뜻하는 耜자에 力자가 결합한 勤자는 쟁기로 열심히 진흙을 다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勤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하다'나 '힘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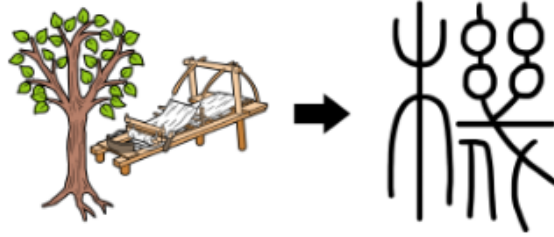
## 회의문자①

筋

힘줄 근

月(육·월=살)과 사람의 팔 𠂇 근육의 힘줄 𠂇 체력을 나타내는 力(력)을 합(합)하여 근육에 힘을 담게 하는 「힘줄」을 뜻하고, 대나무는 섬유가 많으므로 竹(죽 𠂇 대나무)을 더하였음. 대나무의 섬유가 본디 뜻. 나중에 사람의 몸의 근육, 힘줄의 뜻으로 쓰이게 되고, 다시 가늘고 긴 것의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음.

## 회의문자①



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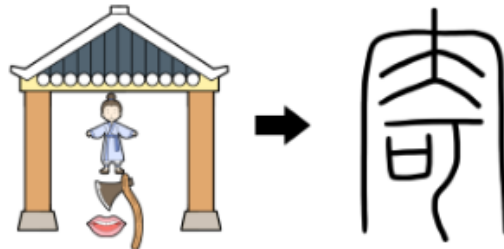
틀 기

機자는 '기계'나 '베틀', '기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機자는 木(나무 목)자와 幾(몇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幾자는 낱실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베틀을 그린 것이다. 幾자를 자세히 보면 ㄠ(작을 요)자와 人(사람 인)자, 戈(창 과)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틀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幾자가 '베틀'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베틀로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낱실을 수없이 올렸다 내려야 한다는 뜻이 파생되면서 '몇'이나 '얼마', '자주'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木자를 더한 機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로 잉아 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베가 잘 짜이던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서 機자에는 '기미'나 '낌새', '기회'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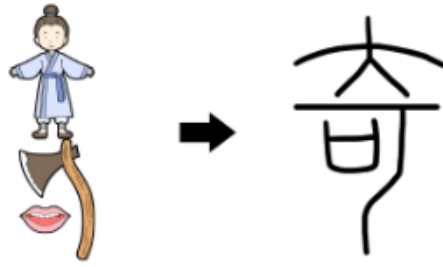
부칠 기

寄자는 '부치다'나 '엠티살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寄자는 宀(집 면)자와 奇(기 이할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奇자는 곡괭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기이하다'나 '괴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寄자는 본래 '임시로 엠티살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 곡괭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의 奇자는 '엠티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내 집에 엠티사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추론이긴 하지만 寄자에 '부치다'나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어디론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奇

기특할  
기

奇자는 '기이하다'나 '기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奇자는 大(클 대)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다. 여기에 大자가 결합한 奇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곡괭이(可)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大)이 '기이하다'나 '괴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可) 사람(大)의 모습이 '기특하다'나 '뛰어나다'라는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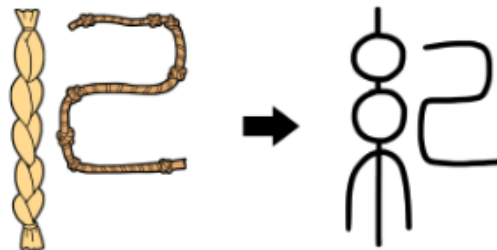
奇

소전

奇

해서

형성문자①



紀

벼리 기

紀자는 '벼리'나 '밀바탕', '단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紀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己자는 끈을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벼를 짜기 위해서는 먼저 묶여있는 실타래에서 한 가닥의 실을 뽑아내야 한다. 紀자는 여러 개의 실 가닥에서 하나를 뽑아낸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어떠한 것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실마리'나 '단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밧줄을 그린 己자는 뽑힌 한 가닥의 실을 뜻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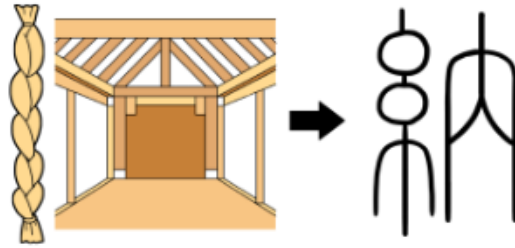
紀

소전

紀

해서

## 회의문자①



納

들일 납

納자는 '(거두어)들이다'나 '바치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納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內(안 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內자는 전통가옥의 내부를 그린 것으로 '안'이나 '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納자는 본래 천이 물에 젖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納자는 內자에 糸자를 결합해 물이 천에 스며든다는 뜻을 표현했다. '안'이라는 뜻을 가진 內자를 응용한 것이다. 納자는 후에 천 조각이 물을 흡수하듯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들이다'나 '바치다', '보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納

소전

納

해서

## 회의문자①



段

층계 단

段자는 '구분하다'나 '층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段자의 금문을 보면 암벽에 돌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과 段(몽둥이 수)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돌을 망치로 두드려 깎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段자에 '절단하다'나 '단련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段자가 돌을 깎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段자는 후에 돌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에서 '조각'이나 '단편'이라는 뜻이 파생되었고 또 돌을 깎은 것이 마치 계단과 같다 하여 '층계'라는 뜻까지 갖게 되었다.

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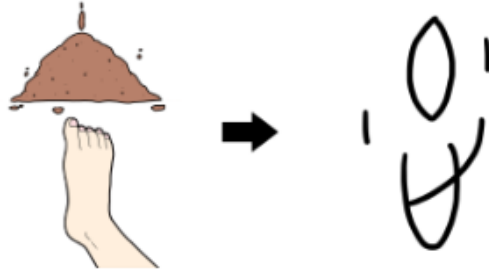
段

소전

段

해서

## 회의문자①



徒

무리 도

徒자는 '무리'나 '제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徒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走(달릴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徒자를 보면 土(흙 토)자와 止(발 지)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土자 주위로는 점을 찍어 흙먼지가 날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것은 발을 내디디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彳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걷다'라는 뜻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徒자의 본래 의미는 '걷다'나 '보행'이었다. 그러나 후에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무리'나 '제자'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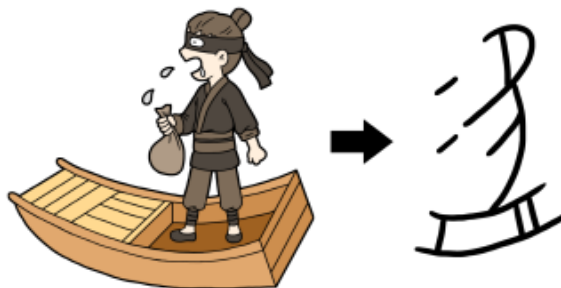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盜

도둑  
도(:)

盜자는 '훔치다'나 '도둑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盜자는 마치 次(버금 차)자와 皿(그릇 명)자가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盜자의 갑골문을 보면 次자 아래로 舟(배 주)자가 그려져 있었다. 次자는 입을 벌려 침을 튀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갑골문에 나온 盜자는 배 위에 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략질을 일삼는 해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舟자가 皿자로 잘 못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